

# 腦血管질환의 外科的치료

과거 이들 발병시 치명적이었으나 다행히도 최근 여러수술 기술과 치료의 발달로 이들 치유율이 높아졌다. 뇌동맥류의 90%이상은 선천성이다. 이들은 주로 혈기형이고 주로 2가지 증상을 나타낸다.

이들의 신경증상은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뇌지주막하로 출혈이 나는 것과 다른 것은 주위 신경 조직의 압박을 천천히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의 사망 빈도는 전체 사망 성인 부검의 4%에서 선천성 동맥류가 발견된다. 동맥류 파열의 90%이상은 40대, 60대이고 전부 뇌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 주로 선천성과 후천적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중요한 선천적 인자는 혈관 내층의 발육장애, 특히 혈관 분기점의 근육층 발육 부전으로 호발된다. 다른 한 가지요인은 Circle of Willis의 기형도 원인이 된다.

후천적 인자는 혈관 내벽의 절편화이다. 이는 동맥 경화성으로 진행되고 여기에 고혈압도 중요 관여자가 된다. 이들의 발생부위는 전 동맥류의 85%가 상천박 부위에서 나오고 후두와에 15%가 발생한다. 이들 혈관별 발생 빈도는 다음과 같다.

①내경동맥과 동맥군 30% (후교통)

②전뇌 동맥군 30%

③중뇌 동맥군 30%

④기저 동맥군 10%로 대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의 크기는 여러가지여서 미세 동맥류에서부터 커다란 동맥류까지 여러 종류이다. 그러나 보통 0.5~1.5cm 크기이고 90%이상에서 파열전까지증상이 없다. 보통 5mm이하 짜리는 파열 예가 적고 커져서 3cm이상이 뇌공간 점유 증상을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주로 혈압 상승시 파열이 잘되는데 즉 부부관계, 정신적 긴장등으로 파열 된다.

◆임상증상 : 뇌혈관 질환의 반

도는 전 부검의 25%에서 발견된다. 뇌혈관 질환의 증상은 연령, 성별, 분포부위, 인종등에 따라서 다르다. 미국등의 통계는 뇌출혈의 70%가 이상이뇌출증이고 20%가 다른 형태의 출혈, 10%가 전색증이다. 전색증은 흑인이나 동양인에서 보다 흔하다. 뇌출혈과 뇌경색은 40대 전에는 발생이 흔하지 않다. 뇌경색의 빈도는 60대에서 80대에 많고 뇌출혈은 40대에서 60대에 많다. 뇌전색증과 뇌지주막하 출혈은 50대에서 60대에 많다. 뇌출혈은 계절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에 많다.

뇌출증은 우발적인 것은 아니다. 개인적 질환력이나 연령,

이 질환시 특히 간질의 존재 유무 양상을 특별히 잘 조사 분석하고 심장 이상시 심전도와 이학적 검사로 이상정도분석과 두통이 있을시 두통기간, 빈도, 정도등을 조사하고 이를 의 소실과 악화인자 등을 조사한다. 시력장애시 일파성, 단일 또는 양측성 유무, 청력장애시 이명과 어지러움증의 동반 유무를 조사한다. 이외에 고혈압, 흡연, 음고 기전이상, 피임제 복용 유무를 조사한다. 또한 과거력과 가족력에 이들의 호발성과 기상감이 인지되는지 조사한다.

발병력은 대부분 뇌혈관 질환 발병은 급격히 발생하고 단

40대 후반 지주막하 출혈환자에서 고혈압과 심장마비증이 잘 발견된다. 심방성세동과 심장증대 소견이 뇌전색증 환자 90%에서 존재한다. 심전도 장애와 이상박동도 잘 발생된다.

## ◆감별진단

뇌혈관 질환은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감자기 발병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감별 진단에는 2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는 세균감염, 퇴행성 질환과 종양등 다른 질환을 먼저 감별하고 둘째는 혈관질환증, 뇌출혈 경색증, 전색증, 뇌동맥류등을 감별해야 한다. 이들 감별은 정확한 병력 조사로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다. 갑자기 발병하는 것은 혈관 질환뿐 아니라 종양, 뇌종양과 감별하고 환자가 혼수시 당뇨, 간질, 음주 및 두부외상을 감별해야 한다.

◆경과 : 뇌출혈의 사망률은

로 Adrenocortico-steroid를 써서 학진된 뇌압을 감압시킨다. 보통 1.5mg/kg/day를 쓴다. CO<sub>2</sub>를 주거나 기타 혈관 확장제를 주어서 경색부위에 혈액 순환을 도준다. 일파성 경색증, 심장으로 야기된 전색증 및 정맥혈전증 시는 heparin, coumarin, urokinase 등 anticoagulants로 치료한다. 그러나 이를 치료시는 뇌출혈이 없다는 보장하에 만지료해야 한다. 보통 2주간 계속한다.

Heparin은 첫 24~48시간에 coumarin과 같이 주고 그 후에 coumarin만 준다. 보통 3개월간 coumarin을 준다. 만일 신체 어느 곳이나 출혈 소견이 있다면 즉시 비타민 K 등을 준다.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최근 특히 일파성 혈전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아스피린을 6~12mg/day 준다. 뇌출혈에 대한 치료는 안정과 출혈성질환 시 이를 조정해 주고 동맥류 치료시 ipsilone이나 transamine를 20mg/day 주어 동맥류안에 혈전 형성을 유도한다. 또한 평소 자기 혈압의 20%감별압 치료로 재파열을 방지할 수 있다. 탈수체 즉 만니톨이나 우레이아를 1~2mg/kg로 주어 뇌압하강을 피한다.

<下>

## 지방질 및 고단백음식 등 섭취 줄여야 고혈압·당뇨병·심장병 治療로 예방

동맥경화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이들을 잘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일파성 경색증 발병시 ▲고혈압 ▲심장이상 ▲동맥경화증, ▲당뇨병 ▲고지방증 ▲흡연자 ▲음주등의 존재시 잘 발생된다. 이들은 대개 4가지 유형으로 대별하는데 ①의식상실이 없이 급격히 발생하는 군 ②의식상실이

있으면서 급격히 발병하는 군 ③의식상실이 없으면서 서서히 발병하는 군 ④의식상실이 늦게 나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군으로 대별 되는데 초기 증상은 발병 양상, 증상 및 임상 결과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의 초기 증상을 잘 분석하면 초기두통, 현훈, 수면성 및 의식 혼돈이 잘 일어나고 이들이 혼합하여 일어난다. 국소성 경색시 언어장애, 편마비, 시력장애, 지각이상등이 인지 된다. 대부분 미세 전색으로 발생되는 일파성 혈관증은 경동맥과 기저 동맥군에 잘 생긴다. 동맥류 때는 진행되어 국소 뇌신경을 압박하게 된다.

시간 안에 심한 임상증상과 소견을 나타낸다. 국소 신경 증상은 이들 출혈부위에 연류되어 있고 일반적 뇌압증진 소견도 부연해서 나타난다. 많은 예에서 의식혼돈, 지남력 장애와 기억력장애가 발병직후 나타난다.

### ◆일반적 환자검사

환자 머리의 외상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고 동공의 크기, 빛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다. 호흡의 상태, 입안의 냄새, 경부강직등도 조사한다. 만일 소량 출혈이나 경색인 경우, 중요 생체반응이 변동이 없을 수 있다. 대량 출혈시 심박동이 증가되고 체온상승, 호흡율의 깊이가 증대되고 Cheyne Stoke·양 호흡이 전색증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동맥경화증은 뇌출혈시 가장 빈번한 원인이 된다. 이들 환자에게서 혈압상승, 말초나 맘막혈관의 경화증, 심장마비가 발전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뇌전색증시는 혈압이 정상인 경우가 많다.

80%이고 뇌지주막하 출혈은 50%이다. 혈전증으로 큰 동맥혈전출혈시 이들 출혈로 인한 사망은 3~12시간안에 결정된다. 뇌출혈과 경색증은 수일, 수주 사이에 사망한다. 사망하지 않은 예에서는 대부분 회복이 된다. 회복되는 속도는 느리고 이때 물리치료 등으로 보조치료를 해야 한다.

### ◆예방대책

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혈압과 지방질, 당뇨, 심장병을 치료해야 한다. 지방질이나 고단백 음식을 피하고 흡연을 중지하고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만일 혈압이 자기 나이에 비해 현저히 증가시 위험률이 크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 ◆치료대책

치료는 2가지 관점에서 한다. 첫째 환자를 소생시키고 둘째는 물리치료로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내과적 치료 : 뇌혈관 경색이나 출혈시 뇌부종이 존재하므로

# 한국에도 이제 맥주효모의 시대가 열렸읍니다!



### 맥주효모제품

(제조허가번호 : 보시부 제27호)  
(품목허가번호 : 보시부 제1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3-4 3층

### 맥주효모는

- 간장괴저예방인자
- 혈당조절인자(GTF)
- 발암억제인자
- 위장강화인자
- 고혈압조절인자

를 갖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리포마®는

맥주효모의 고유한 쓴맛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제(錠劑)로 만든 영양등식품입니다.

### (주)한국바이오에너지

맥주효모제품 리포마®의 생산 및 보급에 대한 공지와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